

■ 2017년도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분야별 심의 총평

연극분야

- 일시 : 2017.1.25.(수)~1.26.(목)
- 장소 : 서울 대학로 메이플레이스 호텔 1층 컨퍼런스 룸
- 심의위원(가나다순) : 김수미, 김숙희, 조만수, 최용훈, 최윤우

2017년도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신나는 예술여행)은 복권기금 문화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경제, 사회, 지리, 특수 소외계층과 순수예술 관람경험의 기회가 적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수요자 맞춤형 사업으로 개편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문화 소외계층에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 한다는 사업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공연예술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심의에서는 대상자맞춤형프로그램 중 연극분야를 심의하였으며, 총 569개 단체 중 각 유형별로 53개 단체를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특징은 공연 순회 시설 및 기관이 선정된 상황에서 순회대상처의 성격과 환경에 맞는 공연예술프로그램을 정확하게 선정하는 것이 주요 선정 기준이었음을 밝힙니다. 또한, 지원신청서의 사업계획, 프로그램과 순회대상처의 적합성, 신청단체의 사업수행 역량을 심의기준으로 고려하였으며, 전년도 공연실적 및 현장 평가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프로그램의 예술적 완성도, 수혜 대상에 대한 분석과 특화된 프로그램 여부, 예산계획 및 수행능력을 주요 기준으로 삼았으며, 유형별로 이에 적합한 예술단체 및 프로그램을 심의 선정하였습니다.

더불어, 앞서 밝혔던 바대로 선정된 공연과 순회대상처의 매칭이 중요한 사업인 만큼, 본 사업의 참여를 원하는 시설의 유형별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였습니다.

가장 지원 건수가 많았던 ‘아동시설’, ‘청소년시설’의 경우 좁은 무대에서도 공연이 가능한 작품, 시설에서 원하는 ‘체험 프로그램’의 실시여부, 외부출입이 불가능한 학생들을 위한 ‘문화 치유 프로그램’ 등이 가능한 단체의 프로그램을 세밀하게 들여다봤습니다. 장애인시설의 경우,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복합적으로 고려한 프로그램, 특히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과 달리 변별력을 지닌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주요 선정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노인시설’의 경우 시설에서 원하는 작품의 유형이 보다 명확하여, 참여자들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체험 위주의 공연 프로그램, ‘일반시설’의 경우 고정된 무대가 없어도 공연이 가능한 작품, 야외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단체를 주요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특수계층’ 시설의 경우 새터민, 교정시설, 군부대 등 일반 시설

과 달리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약조건이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작품을 대상으로 심의, 선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처음 진행된 대상자맞춤형 신규프로그램의 신설은 중장기적으로 순회사업에 부합하는 우수 프로그램을 창작, 개발한다는 측면에서 기대할만한 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반 창작지원과 달리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확한 대상에 대한 고민을 전제로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명확한 기준을 갖고 준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입니다.

‘신나는 예술여행’은 타 지원사업 보다 월등히 많은 예술단체가 지원하는 사업이며, 그만큼 예술단체의 창작역량 및 활동성을 강화할 수 있는 측면, 문화 소외계층에 우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측면 역시 충분히 기대할만한 사업이며, 그에 부합하는 우수한 예술단체 및 프로그램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정할 수 있는 건수가 현저히 적다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지원처의 경우, 순회대상처의 최대 매칭 횟수를 조정하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예술단체가 지금보다 많아질 수 있도록 체계 개선을 고려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또한 유형별로 중복 신청이 가능한 현재 구조도 개선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즉, 본 사업은 정확한 대상물 주 타깃으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공연을 진행하는 사업임과 동시에 중복신청을 하더라도 중복 선정될 수 있는 여지가 극히 희소함으로 지원신청 단계부터 하나의 유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심의 의견이 있었음을 밝힙니다.

예술단체의 경우 지원 유형 및 시설, 기관에 따라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가를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유형에 적합하다는 것은 반대로 변별력으로서의 특징이 부족하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정된 단체의 경우, 프로그램 운영 시 참여인력, 세부프로그램의 완성도, 예산집행 등을 계획서에 맞게 충분히 실현하여, 그 어떤 사업보다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참여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 사업이 문화예술을 통해 다양한 층위의 관객들을 만나고, 그럼으로써 공연예술의 저변이 확대될 수 있는 사업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심의위원 일동

무용분야

- 일시 : 2017.1.18.(수)
- 장소 : 서울 대학로 메이플레이스 호텔 1층 컨퍼런스 룸
- 심의위원(가나다순) : 김경태, 김이경, 문영철, 안병순, 윤성주

2017년 한해동안 아동시설, 장애인시설 등 문화 소외계층을 찾아가서 공연을 펼칠 12개 무용작품이 선정됐다. 총 101개 신청 작품 중에서 10% 내외를 선정하는 과정이었는데, 예술작품을 서류만으로 평가해야 하는 한계에 더하여 성의있게 준비한 각 단체들의 고민과 노고가 느껴져서 심의에 어려움을 겪었다.

한국전통 부문에서 44작품을 신청하여 가장 많았고, 현대무용과 발레가 각각 32작품, 25작품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에서 지원한 작품이 43작품이었고, 그 외 지역에서 58작품을 신청했다.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지역 편중 현상이 심각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신청이 많아지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아무래도 수도권에 비해 문화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관객개발 측면에서도 불리한 여건에서 전통의 계승과 공연 예술의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예술단체들께 박수를 보낸다. 올해에는 아쉽게도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으나, 차기연도에는 좀 더 많은 작품이 긍정적인 평가를 얻을 것으로 믿는다.

심의위원들은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이외 지역의 예술단체 우선 고려와 부문별 안배를 염두에 두는 것에 동의하고 심의에 임했다. 지원신청서상의 공연계획이 순회대상처와 얼마나 잘 어우러지는지, 예산배정 등 사업계획은 적절하게 구성됐는지, 예술단체의 과업 수행능력은 충분한 지 등에 주목하여 살펴보았다. 동일 사업을 수행한 이력이 있는 단체는 기존사업 수행결과를 반영하였으며, 새로 신청한 단체는 순회사업의 콘텐츠 저변이 넓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별도로 평가 하였다.

선정된 작품은 발레 5건, 현대무용 4건, 한국전통무용 3건으로, 수혜기관의 선호도와 공연구성의 적합도에서 평가가 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대상자 맞춤형 신규프로그램’은 올해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인데, 기존 작품의 유통을 넘어서서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에 적합한 작품의 창작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첫 시도였으나, 신청자들이 적극적인 ‘창작’보다 기존작품의 보완에 치중한 것으로 판단되어, 아쉬움을 남겼다.

마지막으로, 신청작 중에서 이벤트성격이 지나치게 강하거나 여타 장르와 단순하게 형식적 물리적 결합을 시도한 작품들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음을 알려드린다.

심의위원 일동

음악분야

- 일시 : 2017.1.23.(월)~1.24.(화)
- 장소 : 서울 대학로 메이플레이크스 호텔 1층 컨퍼런스 룸
- 심의위원(가나다순) : 김용환, 박진영, 방용석, 오희숙, 장기범

2017년도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신나는 예술여행)은 총 531건 신청되어 면밀한 심의를 통해 모두 40건의 사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심의위원들은 제출된 지원신청서와 단체 소개서를 각자 사전 면밀히 검토한 후, 함께 모여 대상 유형별 세부적인 토론을 거쳐 개별 채점하였다.

평소 음악 예술을 접할 기회가 없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된 본 사업에는 500여개가 넘는 지원 신청이 접수되었고, 이를 심의위원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 심의하고자 노력하였다. 심의 과정에서는 다음의 요소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였다.

- 1)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일반, 특수계층 등’ 대상자의 특수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각 공연의 대중적인 곡 위주의 프로그램보다는 클래식 음악에 대한 경험을 강하게 줄 수 있는 신청서가 높이 평가되었고, 일반시설에서의 공연은 공연 장소를 고려하여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선호되었다.
- 2) 공연 프로그램은 음악성의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이번 신청서에서는 많은 경우 대중적으로 알려진 작품들이 언급되었는데, 음악의 아름다움이나 깊이 있는 경험을 이룰 수 있는 참신한 레퍼토리를 시도하는 단체가 높이 평가되었다.
- 3) 공연의 질을 결정하는 또 다른 요소는 연주자의 몫이다. 각 단체의 연주 경험과 역량, 개별적 연주자 수준 등을 심사 요소로 검토하였다.
- 4)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의 성실함과 열정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심의에서는 지금까지의 공연에 대한 평가도 고려의 대상으로 넣었다.
- 5) 신규 프로그램의 경우, 대상을 고려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작하려는 시도를 하고있는 신청자를 찾고자 하였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기획서는 이미 진행되는 공연과 유사하기에, 단체를 선정하지 못했다.

심의 과정을 통해서, 소외계층에게 음악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번사업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었다. 열악한 환경에서 여가 시간을 많이 갖지 못하고, 시간이 있다면 주로 TV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음악 공연을 경험한다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러한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또한 더욱 전문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신나는 예술 여행’ 사업이 발전하기 위하여 심의위원들은 다음의 사항은 언급하였다.

- 1) 공연 프로그램의 예술성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청중이 좋아하는 것 위주의 천편일률적인 레퍼토리에서 벗어나, 클래식 음악의 묘미를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작품들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청중의 대상이나 장소 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보다 창의적인 연주자들의 레퍼토리 개발이 필요하다.
- 2) 공연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연주자를 발굴하고, 연주의 완성도를 높이는 노력이 많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엄밀한 평가를 사업단에서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3) 소외계층을 위한 순회 공연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연구팀을 구성하여 신규 프로그램을 모색하고, 공연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의 모범적 사례에 대한 고찰, 음악과 다른 장르와의 연계 가능성 모색도 이 사업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심의위원 일동

전통분야

- 일시 : 2017.1.17.(화)~1.18.(수)
- 장소 : 서울 대학로 메이플레이스 호텔 1층 컨퍼런스 룸
- 심의위원(가나다순) : 노복순, 박재천, 윤성주, 임미선, 최창주

2017년도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신나는 예술여행) 대상자맞춤형 프로그램 전통분야는 7개 사업유형에 총 489단체가 신청하였고, 순회대상처 사전수요조사를 통한 수요 예측으로 총 60개 단체를 선정하였다.

이에 심의위원들은 각 순회대상처별로 단체의 지원 신청서를 검토하고 심의 기준에 따라 개별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후 고득점 순으로 단체를 선정하였다. 또한 심의 관여금지제도를 채택하여 심의위원이 신청단체나 신청주체와 개인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경우 심의를 회피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였다.

심의기준은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구체성, 프로그램의 예술적 수준과 대중적 인지도, 사업에 대한 이해와 수혜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적합성, 유사사업 추진 경험과 실적을 보유한 단체의 수행 역량, 예산계획과 규모의 현실성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본 심의에서는 제시된 심의기준과 더불어 지나치게 대중성과 유희적 요소가 강하게 드러난 프로그램과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 나아가 전통공연문화에 대한 정체성이 희박한 프로그램이 낮게 평가되었다. 또한 공연예술계 나아가 국민들의 다양한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해 예술성과 문화적 파급효과가 검증된 신생단체와 지역 소재 단체의 참여기회 확대도 고려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전통분야 심의위원들은 전통공연문화를 통한 순회대상처의 문화향수권 신장과 수월성이 담보된 단체 선정에 밀도 있는 심의를 진행하여 60곳을 선정하였다.

한편 올해 처음 공모한 신규제작 분야는 많은 단체가 참여하였지만, 사업 의도에 부합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공연예술 전반에 걸친 창작 작품의 요구와 창작기반 여건이 부실한 현실을 감안하여 기대가 되는 단체를 선정하였다.

전통분야 지원 신청 단체 중 상당수가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유사한 프로그램과 단체의 정체성이나 지향성과 무관한 프로그램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전통공연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각 순회대상처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참신한 프로그램과 기획이 요구된다.

앞으로도 본 사업이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신장과 예술단체들의 활발한 예술 활동 창구가 되길 기대한다.

심의위원 일동

예술일반분야

- 일시 : 2017.1.19.(목)~1.20.(금)
- 장소 : 서울 대학로 메이플레이스 호텔 1층 컨퍼런스 룸
- 심의위원(가나다순) : 구은자, 구혜경, 김종찬, 김태호, 최혜자

2017년도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신나는 예술여행) 대상자맞춤형프로그램 예술일반분야는 총 365건 신청되어 면밀한 심의를 통해 모두 44건의 사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심의위원들은 제출된 지원신청서와 단체소개서를 각자 사전 면밀히 검토한 후, 함께 모여 대상 유형별 세부적인 토론을 거쳐 개별 채점하였다.

본 사업은 소외계층 순회사업으로 장르 중심이 아닌 다양한 대상자를 맞춰 찾아가는 사업이다. 때문에 심사위원 간에 다양하고 적합한 작품과 대상에 대한 지난한 토론 과정을 거쳐 유형별 대상 단체를 선정하였다.

전체적으로 장르적 다양성이 다소 부족하고 단순 기예 중심 프로그램이 많아 아쉬운 한편 지난 몇 년 간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우수한 단체도 있어 반가웠다. <아동시설 유형>의 경우 특정 장르와 기예에 편중됨이 심한 경향이 보였다. 이에 프로그램 완성도와 단체의 기획 능력에 중점을 두어 심의하였다. <장애인시설 유형>은 단순 관람보다 복합적인 체험 프로그램을 선호했다.

<청소년시설 유형>은 진지한 예술과 함께 쉽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돋보였으며, <노인시설 유형>의 경우 익숙한 프로그램과 함께 새로운 양식의 프로그램을 선정하였다. <일반시설 유형>의 경우 단체의 기획력, 실행 능력을 우선 판단기준으로 하였다. <특수계층시설 유형>은 무엇보다 완성도 높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정코자 하였다. <대상자 맞춤형 신규프로그램>은 발전가능성이 높고 특정 순회대상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기반한 사업을 선정하였다.

전반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한 단체가 복수의 유형에 선정되는 것을 지양했으며 지난 사업의 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선정에 반영하였고 동점일 경우 지역 안배를 염두에 두었다. 프로그램의 예술적 완성도와 충실성(40%), 프로그램 수혜 대상의 적절성(40%), 신청 단체의 사업 진행 능력(20%) 등을 주요 심의 기준으로 보았다.

선정된 단체들은 아무쪼록 소외계층을 위해 각자의 귀한 재능을 적극적으로 나누길 바라며, 무엇보다 진행 과정에서의 안전과 성공을 기원한다.

심의위원 일동